

쉼터에 거주하는 십대 미혼모의 희망 체험: Parse의 연구방법론 적용

김은희¹ · 이정숙²

기독교간호대학 교수¹,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The Unwed Teenage Mothers' Lived Experience of Hope in a Group Home: Using Parse's Research Methodology

Kim, Eun Hee¹ · Lee, Chung Sook²

¹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to discover the structure of the unwed teenage mothers' lived experience of hope using Parse's research methodology. **Methods:** Participants were 7 unwed teenage mothers in one group home. The data were collected by dialogical engagement and analyzed through extraction-synthesis and heuristic interpretation process. **Results:** The unwed teenage mothers were very troubled over the thought of aborting their babies after they found themselves pregnant.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the birth and give their babies up for adoption as they recognized that a baby's life was precious. They felt the joy of love for the baby and the sorrow of separation at the same time. They spent much time uncomfortably concealing being pregnant but after they shared their pain and sorrow with significant others they became more stable. Their desire to make a new life increased gradually and they tried to find their own way. They were proud of themselves for overcoming the pain of childbirth and decided to make a good life. **Conclusion:** Having compared the structure of the unwed teenage mothers' lived experience of hope with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five concepts were identified, such as valuing, connecting- separating, revealing-concealing, powering and transforming.

Key Words : Teenage pregnancy, Mother, Hope, Qualitative researc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성 경험의 연령이 낮아져 십대 미혼모 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십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50%에서 2000년에는 55%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0년도 초반에

비해 후반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Chung, 2001; Lee, 2001). 특히 십대 미혼모는 성인 미혼모 보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더 지지 받지 못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의 충격과 후유증이 더욱 크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신을 은폐하게 되고 그 결과 가출, 학업중단, 직장포기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과오를 탓하며 삶

주요어 : 십대 미혼모, 희망, 질적 연구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Eun Hee,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67 Yang Rim-dong, Nam-gu, Gwangju 503-711, Korea.
Tel: 82-62-676-8156, Fax: 82-62-675-5806, E-mail: Kclala@hanmail.net

-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doctoral dissertation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9년 10월 20일 / 수정일 1차: 2010년 3월 5일, 2차: 2010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3월 12일

을 포기하려는 등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Chen, Telleen, & Chen, 1995; Park, 2001; Ventra & Curtin, 1999).

십대 미혼모들이 미혼모로서의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십대 미혼모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기를 입양 보내는 힘든 상황을 극복해왔으며,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미혼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미혼모의 발생요인, 특성, 현황과 문제점과 관련된 양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Kim, 1998; Kim, 2000; Joo, Kim, & Choi, 1997). 질적 연구로는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연구(Joo, 1999; Lee, 2001; Park, 2001) 등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모들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고통의 심층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임신, 출산, 입양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들,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희망과 희망 없음의 양상을 지닌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해 가는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G시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 쉽터에 매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1년 이상 지속해왔다. 이렇게 미혼모들의 생활세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문헌 고찰, 미혼모 수기, 편지 및 미혼모의 생활에 관한 영상자료 등을 다양하게 탐구하여 미혼모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해 십대 미혼모들은 임신, 분만, 입양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여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십대 미혼모에게 중요한 현상은 자신의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여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창조적인 상황화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그려보면서 건강의 패턴을 바꿀 수 있으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려고 하면서 힘을 얻으며, 항상 되어가고 있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한다(Parse, 1990-a, 1992).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

거를 둔 Parse의 연구 방법론은 인간-우주-건강과의 상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생생한 체험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십대 미혼모가 자신의 가치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의 유형을 바꾸어 가며, 희망을 발견하여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적합하다. 또한 Parse의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된 연구결과는 다양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키며, 간호사가 간호하는 방법을 변화하게 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 Lee, 2002; Yun, 2001). 이에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쉽터에 거주하는 십대 미혼모들의 희망 체험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청소년 미혼모 쉽터에 거주하는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Parse의 연구방법론

Parse는 인간 되어감 이론의 가정과 원리를 이용하여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연구 방법론의 초점은 인간-우주-건강의 상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생생한 체험의 구조를 밝히는데 있다. Parse의 연구방법론은 참여자들이 서술하는 체험의 본질을 인간 되어감 이론에 따라 해석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이다. Parse의 연구 방법론의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은 우주와 상호 관계하는 개방적인 존재이며, 인간 되어감의 구조는 인간-우주-건강과정과 관련이 있다.
- ② 인간 되어감은 개인에 따라 독특하다. 인간은 타인과 우주와의 관계에서 선택을 함으로써 건강을 구체화한다.
- ③ 생생한 체험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간 되어감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
- ④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는 '나와 너'관계

과정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체험한 현상의 의미가 드러난다. 참여자와'진정으로 함께 함'(true presence)으로써 연구자는 참여자로부터 경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⑤ 연구자는 추출-종합, 발견적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고, 의미의 논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체험의 구조를 만든다.

Parse 연구방법론의 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경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주관적으로 함께 하는 나와 너 관계 과정과 참여자의 언어에서 연구자의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추출-종합과정 그리고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발견적 해석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하는 연구의 대상은 고통, 만족, 슬픔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보편적인 체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하는 체험의 의미를 어휘,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통하여 기술할 수 있다.

3. 연구자 준비

연구자는 다년간의 정신간호 실무 및 교수 경력과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기법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고 간호실무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 및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되었는데, 이는 연구자 자신이 도구인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대학원 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였고, 다양한 질적 연구 워크숍과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청소년 미혼모 쉼터에서 1년 이상 미혼모들을 상담하였으며, 문헌고찰, 미혼모 수기, 편지 및 미혼모의 생활에 관한 영상자료 등을 다양하게 탐구하여 미혼모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특히 이들을 상담할 때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에 따른 간호실무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와 동시에 간호를 실천 할 수 있는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4. 자료수집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G시에 있는 청소년 미혼모 쉼터(unwed teen-

age mothers' group home)에 거주하는 미혼모로서, 연구자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연구에 동의한 사람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16세에서 19세까지이며 면담 시 참여자의 상황은 임신 주수가 36주인 참여자가 3명이었고, 분만 후 1주가 지난 참여자가 4명이었다. 참여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면담을 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2) 연구자와 참여자의 나와 너 관계과정(dialogical engagement)

연구자와 참여자의 나와 너 관계과정을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희망과 관련된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설명해주면서 참여자의 경험이 어떻게 회상되는지, 현재의 경험은 어떠한지, 또 그 경험과 관련하여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도록 대화를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 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시기 및 장소는 출산 전 또는 출산 후로 쉼터에 있는 조용한 방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였다. 면담회수는 2~3회로 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다 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2~3회 면담은 1회 면담 내용 중에서 중요한 진술이나 애매모호한 진술을 재확인하면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또 연구자는 쉼터에서 침대 미혼모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Parse의 이론에 따른 실무방법을 적용하여 개인의 살아있는 건강경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갔다. 즉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선택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Parse 이론에 따른 실무를 하면서 참여자들의 건강과정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동시에 Parse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이들의 희망체험을 탐색하였다.

3) 자료분석

Parse 연구방법론의 자료분석에는 추출-종합과정과 발견적 해석이 포함된다.

(1) 추출-종합 과정(extraction-synthesis process)

이 과정은 참여자의 언어에서 연구자의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옮겨가는 단계이다. 나와 너 관계과정을 통하여 녹음된 내용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원 자료와 비교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구술 내용에서 희망과 관련이 있는 자료에 밑줄을 긋고 대화의 내용에 몰두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성찰하였다. 그 다음에 참여자의 언어에서 희망 경험의 핵심사상을 추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였다. 각 참여자로부터 얻은 명제들을 정리하고, 명제에서 핵심개념을 추출하고, 추출된 핵심개념들을 체험의 구조로 종합하였다. 종합된 체험의 구조는 핵심개념을 합하여 연구자가 개념화한 진술이다. 이 구조가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추출-종합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타당성 있게 추출-종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명의 참여자에게 각각 자신들이 서술한 내용과 추출-종합한 결과가 자신의 경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이어 질적 연구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3인에게 핵심사상을 추출-종합하여 명제를 도출한 과정과 체험의 구조로 종합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위의 과정이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평가받은 후 수정 보완하였다.

(2)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발견적 해석은 희망체험의 구조를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희망체험의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철학적 가정에서 나타난 세 가지의 주제-의미화, 율동성, 초월성-와 통합하였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구조를 인간 되어감 이론의 개념-가치화, 노출-은폐, 연결-분리, 강화성, 변형성-으로 경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연구결과

1. 참여자의 구술에 따른 추출-종합과정

1-1) 참여자 1의 구술

(1) ...임신사실을 알고 막막하고 답답했으나 지금까지 이런 일 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왔는데 이런 일로 상처받을 내가 아니다며, 내 머릿속으로 난 할 수 있다고 계속 암

시를 했어요. 가끔씩 기분이 안 좋을 때 희망을 잃어가려고 할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움직이면 내 핏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게 희망적이었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면 우리 애기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핏줄이니까 땡기나봐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아이를 생각하게 되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요.

(2) ...오빠 집에 들어가 무릎 꿇고 말을 했어요. 오빠 아빠(시아버지 될 분: 연구자 주)가 너희들 어떻게 할거냐 해서 한숨 쉬다가, 모르겠어요, 같이 살래요 그랬어요. 너희들 집 나가 살 때부터 그런 줄 알았다며 부모님들이 한숨 쉬고..., 그래서 맘이 아팠어요, 죄송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어떻게 할거냐고 인제 너희들 좋을 대로해라 그대신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 다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살자고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3) ...오빠는 말을 잘 안 해요.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처음 애기를 봤는데, 너무 기뻐서 오빠한테 전화하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오빠가 그때 마음이 트였는지 저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기 이름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말 오빠랑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임신 초기 때 오빠가 나는 너 책임진다고 했을 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4) ... 오빠도 인제 애기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 친구 만나니까 질투도 나고 정 떨어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애기 아빠 되는 거 싫지? 전 진심으로 물어봤는데 오빠 농담으로 들었나봐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쉽터로 올라와 버렸어요. 정말 실망이 되더라고요. 오빠가 철이 없는 건 이해하는데 서운하더라고요.

(5) ...주위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쉽터에 왔고, 여기 와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편해요.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좋아요...

(6)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제가 임신 초기에 술, 담배를 많이 했는데 기형아 날 확률이 높잖아요, 막상 기형아면 어떡할까... 초음파 검사했을 때 손목이 더 길어 보이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정상일 것 같기도 하고 기형일 것 같기도 하고 반반 이예요. 지금은 애기한테 좋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7) ...집 나와서 대개 힘들게 살았어요. 임신 한 사실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아기 하나 키

우는 게 무슨 걱정이야 했는데, 배가 점점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누그러 들더라구요, 무섭더라구요. 분만할 때도 힘들 거고, 아기 키우면 돈도 많이 들거고..., 자신을 믿고 살아갈려고 해요. 지금은 잘 할려고 노력해요. 아무튼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니까. 그리고 제일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애기가 학교 가서 엄마, 아빠 학력에 대해 말을 할 때 제 애기가 쟁취할 것 같아서 공부하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복잡해요, 이 나이에 이런 고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8) ...선생님과 이야기한 후에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정리가 되었어요. 오빠가 피하는 것 같고 연락도 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어요. 오빠는 믿을 수 없어요. 애기는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애기는 핏줄이니까 예쁘잖아요. 아빠보고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할 계획 이에요. 이렇게 결정하고 나

니까 마음이 편해요.

1-2) 참여자 1의 언어에서 추출-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 내용

참여자 1의 언어에서 추출-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1-3) 참여자 1로부터 추출-종합한 명제

명제 1-1. 암담한 임신과정을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극복하며, 태동을 느끼면서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성숙한 행동을 하며 태교를 위해 노력한다.

명제 1-2. 부모님께 임신사실을 알리고 인정을 받자 가슴깊이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초음파 사진 속의 아기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와 함께 기쁨을 나눈다.

명제 1-3. 무책임한 미혼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자, 집을 떠나 쉼터에 들어와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안정되어간다.

명제 1-4. 아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상하면서 현실적인

Table 1. Essences in the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Language (Participant 1)

Participant's language	Researcher's language
1. 임신으로 인한 암담한 상황을 역경을 헤쳐온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태동을 느끼면서 아기를 사랑하게 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	· 암담한 임신과정을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극복하며, 태동을 느끼면서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됨.
2.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각오로 오빠의 부모님께 임신사실을 알린 후, 함께 살도록 허락을 받게되자 죄송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 용기를 내어 미혼부의 부모님께 임신사실을 알리고 인정을 받자 가슴깊이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됨.
3. 초음파 사진의 아기 모습을 보며 오빠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앞으로의 생활을 설계해본다.	· 미혼부와 함께 초음파 사진의 아기모습을 보고 기쁨을 나누면서 미래의 생활을 상상함.
4. 오빠가 아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준비하지 않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계속하자 실망을 하고 집을 떠나 쉼터에 오게 된다.	· 무책임한 미혼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자 집을 떠나 쉼터에서 지내기로 결정함.
5. 쉼터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 쉼터에서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안정되어감.
6. 임신초기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아기가 기형아가 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면서 아기를 위해 태교에 힘쓴다.	· 정상이 분만을 기대하며 태교를 위해 노력함.
7. 아기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아기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갈등을 느끼나 열심히 살아야한다고 다짐한다.	· 현실적인 양육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나 아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상상하면서 삶에 대한 의지를 굳힌다.
8.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정리해보며, 오빠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관계를 끝내고자하나 아기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결심한다.	· 연구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며,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함.

양육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나 자신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한다.

명제 1-5. 연구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한다.

2. 종합적 명제

7명의 참여자의 구술에서 추출-종합한 29개의 명제에서 14개의 종합적 명제를 도출하였다.

명제 1. 암담한 임신과정을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극복하며, 태동을 느끼면서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성숙한 행동을 하게 된다.

명제 2. 낙태문제로 갈등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출산한 후 입양하는 것을 선택한다.

명제 3. 괴로운 임신과정을 친구들의 도움과 엄마의 지지로 견디어낸다.

명제 4. 미혼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고 소원해지며,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한다.

명제 5.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김과 동시에 이별에 대한 아픔을 겪지만 아기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여 입양을 선택한다.

명제 6. 해산의 고통을 통해 엄마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워하게 된다.

명제 7.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달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한다.

명제 8. 부모님께 임신사실을 알리고 인정을 받자 가슴깊이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끼며, 초음파 사진 속의 아기모습을 보고 미혼부와 함께 기쁨을 나눈다.

명제 9. 쉽터에서 직원들의 사랑을 받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평안해진다.

명제 10. 연구자에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냄으로써 안정되어간다.

명제 11. 강한 의욕과 자신감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고심하면서 현실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명제 12.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한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당면한다.

명제 13.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상상하면서 먼 훗날에 아기와 떼뗄만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가슴속에 아기를 품고 살아간다.

명제 14. 해산의 고통과 생명탄생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

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

3. 희망체험의 구조

희망체험의 핵심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14개의 종합적 명제를 5개의 명제로 추출-종합하여 5가지의 핵심개념을 파악하였다(Table 2).

5가지의 핵심개념을 희망체험의 구조로 종합하여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암담한 임신상황에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낙태여부로 고심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쉽터에 들어와 출산한 후, 아기양육을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나 아기에 대한 모정이 우리남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공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책임한 미혼부와는 멀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노출되는 것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지내다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안정되어가며, 방황하며 보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

4. 발견적 해석

희망체험의 구조와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5가지의 핵심개념을 Parse의 이론에 있는 개념과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의 구조를 인간 되어감 이론의 세 가지 주제와 통합하면,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암담한 임신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meaning),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임신의 고통을 감추거나 드러내며(rhythmicity),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cotranscendence), 자기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삶을 재구성(cotranscendence)하는 경험이다(Table 3).
- 희망체험의 구조를 인간 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출산결정과 입양선택에 대한 가치(valuing)가 연결-분리(connecting-

Table 2. Core Concepts of Propositions for All Participants

Participant's language	Researcher's language
1. 임신사실을 지각한 후 압담한 심정으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고 낙태문제로 갈등하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낙태를 포기하고 쉼터에 들어와 출산하며, 아기양육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여 입양을 선택한다.	· 압담한 임신상황에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낙태여부로 고심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쉼터에 들어와 출산한 후, 아기양육을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함.
2.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김과 동시에 떠나 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을 겪는다. 그리고 자신과 아기에 대한 미혼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하여 소원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됨.	· 아기에 대한 모정이 우리남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공존하며, 무책임한 미혼부와는 멀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됨.
3. 임신사실을 감추며 불안하게 지내다가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받거나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함으로써 평안해진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드러냄으로써 안정되어간다.	·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노출되는 것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지내다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안정되어감.
4. 방황하면서 보냈던 과거와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도 느끼지만 굳은 의지와 자신감으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고심한다.	· 방황하면서 보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더 나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함.
5. 해산의 고통과 생명탄생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되고, 먼 훗날에 아기와 멋진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	·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함.

separating),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 과정을 통해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강화(powering)되고, 자기인식의 변형(transforming)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경험이다(Table 3).

논 의

1. 희망체험의 구조에 대한 논의

첫째, 압담한 임신상황에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낙태여부로 고심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쉼터에 들어와 출산한 후, 아기양육을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함.

참여자들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무력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이들은 그때의 심정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절망적이어서 울기만 했고 죽고 싶었다.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 이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다"라고 말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압담한 상황에서 아기를 지을 생각을 하게 되고 낙태 권유도 받게 되지만, 낙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하다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임신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은 임신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몸을 감추기 위하여 남의 시선을 피해가며 긴장과 불안 속에서 지내다가, 태동을 통해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체를 확인하고 희망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Saewyc, 1999). 그리고 산달이 가까워지면 쉼터에 들어와서 출산 준비를 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는 입양 보낼 계획을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혼모의 출산 동기를 보면 임신 사실을 모르고 낙태시기를 놓쳐서, 경제적 이유, 낙태가 두려워서, 생명에 대한 애착 등(Joo, Kim, & Choi, 1997)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낙태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으로 출산을 결정하고 입양할 계획을 하였다. 임신에 대한 문제를 낙태로 해결할 경우에는 재 임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출산을 결정한 후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Han & Yang, 1997). 이러한 과정이 많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역경을 극복해가면서 성숙해지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Table 3. Progressive Abstraction of the Core Concepts of the Lived Experience of Hope

Core concepts	Structural transposition	Conceptual integration
1. 압박한 임신상황에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낙태여부로 고심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쉼터에 들어와 출산한 후, 아기양육을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함.	· 압박한 임신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 인식(meaning)	가치화(valuing)
2. 아기에 대한 모정이 우려남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공존하며, 무책임한 미혼부와는 멀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됨.	·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짐-멀어짐(rhythmicity)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
3.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노출되는 것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지나다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안정되어감.	· 임신의 고통을 감추임-드러냄(rhythmicity)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
4. 방황하면서 보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더 나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함.	· 자신의 좌오를 되돌아 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감(cotranscendence)	강화성(powering)
5.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함.	· 자기 인식의 전환과 삶의 재구성(cotranscendence)	변형성(transforming)

그러므로 미혼모에 대한 간호를 실천할 때 이들이 아무런 대안이 없이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주며, 미혼부도 참여시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상호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기에 대한 모정이 우려남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공존하며, 무책임한 미혼부와는 멀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됨.

아기를 낳은 참여자들은 태어난 아기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모정이 우러나온다. 어린 나이에 임신이라는 역경을 극복하고 낳은 아기이기에 사랑이 각별한데 눈물겨운 이별을 해야 하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이들은 아기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독특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아기를 내 핏줄, 나의 반쪽, 소중한 보물, 나의 천사, 하 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상징하고, " 널 처음 보는 순간에 엄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에 숨이 탁 멎는 듯 했 어. 이렇게 예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실감이 나

요. 나한테 애기가 소중한 보물이나 다름없는데... " "난 아직 까지 두려워, 널 마지막 순간에 놓아주지 못할까봐, 아마 나 의 손 하나 발 하나 떼어내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 꺼 같아... " 라고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아기와 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혼부나 부모 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설적인 정서를 보였다. 미혼부로부 터 낙태를 권유받고 혼자 힘든 임신과정을 견디어오면서 미혼부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고 그리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과 입양 을 보내는 과정에서 미혼부의 냉정한 반응을 보고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또 참여자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사랑하 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멀어졌지만 출산경험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다. 특히 해산 무렵에는 엄마를 보고 싶어 하며, 해산의 고통을 통해 엄마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엄마에 대 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아기, 미혼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보이지만 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아기 를 입양 보내는 것이다. 이들은 아기를 입양 보내면서 큰

슬픔을 겪게 되는데 이는 모성애의 상실감으로 볼 수 있다. 미혼모는 아기와 헤어졌지만 그 아기가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혼모가 겪는 상실감은 사별로 인한 상실감보다 더 극복하기 힘들다(Clifford & Brykczynski, 1999; Joo, 1999; Paskiewicz, 2001).

그러므로 간호사는 미혼모들의 아기에 대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애도과정을 통해 아기에 대한 상실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아기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권포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 입양상담을 의뢰할 때 간호사는 미혼모가 입양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즉 입양의 종류(국내입양 또는 해외입양, 공개 입양 또는 비공개 입양)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기대하는 입양부모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양부모의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 등 입양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기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미혼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인식하게 되고 현실감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

셋째,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노출되는 것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지내다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안정되어감.

참여자들은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대상에 따라 다르게 임신사실을 알리거나 숨겼다. 이들은 부모님께는 차마 알릴 수 없어 임신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긴장하면서 살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집을 나오게 된다. 집을 나온 후에 남의 시선을 피하면서 힘들게 지내다가 쉼터에 오게 된 후에는 임신을 감출 필요가 없게 되자 안정을 찾게 된다.

참여자들은 임신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 분만에 대한 두려움, 분만 후의 불편감을 주위사람들의 관심과 위로, 지지를 받으면서 극복해갔다. 즉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는 희망은 타인을 통하여 자아의 존재의미를 느끼는 것이고, 희망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전문가들과의 지지적이고 신뢰적인 관계형성이다 라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Kirkpatrick, Landeen, Woodside, & Byrne,

2001; Lee & Kim, 2002).

동료들의 지지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주고 이해해주는 건강전문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존감이 회복되고 편안해지면서 태아를 사랑하게 되고 태교를 시작하게 된다. 또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꿈과 희망을 향해 나갔으며, 연구자도 참여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진정으로 함께 있어주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언어와 행동에서 자신들을 향한 애정을 느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안정되어갔다. 참여자들은 "이야기 하니깐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의 자상한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편하게 말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했다.

간호연구에서 대화를 통한 지식은 대화하는 사람들 사이의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라는 그물 망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야기가 담긴 대화를 통해 생산되는 지식은 삶에 대한 신념, 도덕, 실천적 유용성, 미적 가치 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연구에서의 대화는 유용한 지식을 산출함과 동시에 돌봄이라는 실천적 행위이다(Kong, 2002).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간호연구자는 대상자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 방황하면서 보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더 나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함.

참여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방황하면서 살아온 지난날들이 허송세월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작은 희망의 씨앗들을 찾아 다양한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미래를 바라본다. 옛 성품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장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지만 새롭게 살고 싶은 의욕은 커져만 간다.

참여자들은 힘겨웠던 임신과 출산, 아기와 이별을 경험하고 나서 강철이 불길에서 달궈진 흑독한 시간동안 큰 탄력과 저항력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열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게 된다. 이는 희망체험의 핵심 개념을 '미

래를 상상하면서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orse & Dobernechm, 1995; Parse, 1990b).

한 참여자는 "애를 낳아보니까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계속 방향만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내가 정신 차리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아야겠다고 굳게 다짐하였다.

심대는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때이다. 참여자들 역시 목표를 상실하고 살았던 과거의 생활과는 달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진로선택에 고심하였다. 그러므로 심대 미혼모를 위한 간호를 실천할 때 진로문제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다섯째,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함.

참여자들은 임신을 하기 전에는 절없이 살았지만 임신을 한 후에는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신중하게 행동을 하게 되며, 태아에게 위험한 행동은 끊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면서 임신을 유지하고, 진통을 참아내며 해산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출산 후에는 아기를 낳은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어 미래를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아기출산으로 인해 자기 가치감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 남을 돕는 봉사의 삶을 살고자하며, 긍정적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자아 의식이 확장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생명탄생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다. Kirkpatrick 등(2001)은 자기초월은 희망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결과라고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희망을 느끼면서 자아를 초월해 주위사람들과 세계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고 성숙해졌다.

참여자들은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겠다는 희망으로 아기와 헤어지는 현실적인 고통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초월해갔다. 이는 희망을 미래의 선에 대한 기대로 현실의 고통이나

제약들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가 미래의 가능성으로 연결된다고 제시한 Tae (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Parse (1998, 2001)는 간호사가 대상자와 진정으로 함께 할 때(true presence), 대상자는 창조적인 상상, 자기확인,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설적인 것에 대해 인식함 등을 통하여 건강양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건강양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방법들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간호실무와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며, 대상자들이 자기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간호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실무를 하는 간호사는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판단하여 대상자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입장에서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 진정으로 함께 있어 준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간호를 하였다. 연구자가 심층면담, 토론, 사진, 편지, 아기방문과 시장보기 등을 통해 창조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와 진정으로 함께 한 방법은 편견 없이 귀 기울이기, 웃으면서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희망 북돋우기, 오랫동안 멀리 바라보기였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함께 하면서 자아를 확인하고, 미래를 창조적으로 상상하고, 자신의 상황과 역경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와 진정으로 함께 있어줌으로써 희망을 공동창조하는 체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으며, 간호는 과학이며 그 실무는 실천하는 예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희망체험을 되어감의 과정인 건강체험으로 입증하여 희망체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을 지지하였다.

2. 발견적 해석에 대한 논의

희망체험의 구조를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에 있는 개념과 관련시켜 해석하여, Parse 이론의 개념 중 다섯 가지-가치화, 연결-분리, 노출-은폐, 강화성, 변형성-을 확인하였다.

1) 가치화

가치화는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첫 번째 원리인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가치화, 상상화, 언어화를 통하여 현실을 공동창조하는 것이다"에서 나온 개념이다. 첫 번째 핵심개념인 "암담한 임신상황에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낙태여부로 고심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쉼터에 들어와 출산한 후, 아기양육을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함"은 가치화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에서 낙태와 출산결정, 입양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여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아기를 지우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인식하며,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선택하면서 아기의 존재와 생명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된다.

2) 연결-분리

연결-분리는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두 번째 원리인 "윝동적인 관계패턴을 함께 창조한다는 것은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 등의 역설적인 단일체로 살아간다는 것이다"에서 나온 개념이다. 두 번째 핵심개념인 "아기에 대한 모정이 우러남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공존하며, 무책임한 미혼부와는 멀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됨"은 연결-분리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아기에게로 마음이 이끌림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역설적인 과정에서 아기모습이 담긴 사진을 사랑의 증표로 간직하고 가슴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아기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 즉 아기와 물리적인 관계의 분리는 더 높은 수준인 정신적 연결로 이어지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 힘이 된다. 참여자들은 아기와 관계 뿐 아니라 미혼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미혼부에 대해 분노와 원망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원망하면서 멀어졌던 마음이 사랑으로 새롭게 연결되었다.

3) 노출-은폐

노출-은폐는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두 번째 원리인 "윝동적인 관계패턴을 함께 창조한다는 것은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 등의 역설적인 단일체로 살아간

다는 것이다"에서 나온 개념이다. 세 번째 핵심개념인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노출되는 것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지내다가,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안정되어감"은 노출-은폐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임신사실을 알리거나 숨겼다. 가까운 친구에게는 알려져 도움을 받았으며, 부모님과 헤어진 남자친구에게는 알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였다. 쉼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위로를 받았다. 또한 연구자를 신뢰하면서 감추어진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4) 강화성

강화성은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세 번째 원리인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초월한다는 것은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에 있는 개념이다. 네 번째 핵심개념인 "방황하면서 보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려는 열망이 커지면서 더 나은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함"은 강화성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참여자들은 임신과 분만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이 실수와 후회로 영겨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즉 임신과 분만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신념으로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였으며, 역경을 헤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추진-저항하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였다.

5) 변형성

변형성은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세 번째 원리인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으로 초월한다는 것은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것이다"에 있는 개념이다. 다섯 번째 핵심개념인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함"은 변형성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변형

이란 세계관이 변화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새로운 발견을 통합하고 자아발견과 자기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다.

참여자들은 해산의 고통과 생명탄생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며,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자아를 초월하여 이웃과 세계로 관심이 확대된다. 즉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이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기쁨과 함께 녹아져 현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초월하게 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십대미혼모들의 희망 체험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Parse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십대미혼모의 희망체험의 의미를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에 비추어 해석하여 희망을 되어감의 과정인 건강체험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G시에 소재한 청소년 미혼모 쉽터에 거주하는 7명의 미혼모이다. 연구결과 밝혀진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의 구조

암담한 임신상황에서 철없이 행동했던 것을 후회하며 낙태여부로 고심하다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포기하고 쉽터에 들어와 출산한 후, 아기양육을 위한 방법으로 입양을 선택하나 아기에 대한 모정이 우려남과 동시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이 공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책임한 미혼부와는 멀어지고, 한때 원망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워하게 된다. 그리고 원하지 않은 임신이기에 노출되는 것을 숨기면서 불안하게 지내다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안정되어가며, 방황하며 보냈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산의 고통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킨 모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면서 아기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경험이다.

2)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의 구조를 인간 되어감 이론의 세 가지 주제와 통합

십대 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암담한 임신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meaning), 의미 있는 사람들과

의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임신의 고통을 감추거나 드러내며(rhythmicity),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cotranscendence), 자기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삶을 재구성(cotranscendence)하는 경험이다.

3) 희망체험의 구조를 인간 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여 해석

십대미혼모의 희망체험은 출산결정과 입양선택에 대한 가치(valuing)가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 과정을 통해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강화(powering)되고, 자기인식의 변형(transforming)으로 삶을 재구성하는 경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희망체험을 되어감의 과정인 건강 체험으로 입증하여 희망체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고,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유용성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십대미혼모를 위한 간호를 실천할 때,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에 따른 실무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간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며, 대상자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삶의 질에 초점을 둘 수 있게 된다.

둘째, 십대미혼모는 임신과 출산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어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십대미혼모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이들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보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en, S., Telleen, S., & Chen, E. H. (1995). Family and community support for urban adolescent mothers. *ABNF Journal*, 6(1), 5-10.
- Chung, O. H. (2001). *A study on the life and welfare of the unwed teenager in a shel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ju University, Gwangju.
- Clifford, J., & Brykczynski, K. (1999). Giving voice to child-bearing teens: Views on sexuality and the reality of being a young parents. *J Sch Nurs*, 15(1), 4-15.
- Han, Y. R., & Yang, S. O. (1997). A study on the pregnancy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s. *J Korean Acad Public Health Nurs*, 8(2), 337-346.
- Joo, O. O., Kim, S. S., & Choi, O. H. (1997). Characteristics of

- unmarried mother in some shelter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8(2), 337-346.
- Joo, S. N. (1999). *A study on the childbirth experience of unmarried moth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M. J. (200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unmarried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J. (1998).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for unmarried mothers in Korea. *Chonnam J Nurs Sci*, 3(1), 52-54.
- Kirkpatrick, H., Landeen, J., Woodside, H., & Byrne, C. (2001). How people with schizophrenia build their hope. *J Psychosoc Nurs*, 39(1), 46-52.
- Kong, B. H. (2002). *Postmodernism and nursing*. Unpublished manuscript, Chosun University Nursing Research Center, Gwangju.
- Lee, C. S., & Kim, S. J. (2002).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case management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ness. *J Korean Acad Psychiatric Ment Health Nurs*, 11(2), 206-220.
- Lee, S. H. (2001). *A Participatory research on the life of unmarried mothers in the welfare cen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S. Y., & Lee, K. H.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domestic and outside applied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J Korean Acad Psychiatric Ment Health Nurs*, 11(1), 43-61.
- Morse, J. M., & Dobernehrn, B. (1995). Delineating the concept of hope. *Image*, 27(4), 277-285.
- Park, I. S. (2001). *A study on unmarried teenag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Daejeon.
- Parse, R. R. (1990a). Health: A personal commitment. *Nurs Sci Q*, 3, 136-140.
- Parse, R. R. (1990b). Parse's research methodology with an illustration of the lived experience of hope. *Nurs Sci Q*, 3, 9-17.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 Sci Q*, 5(1), 35-42.
- Parse, R. R. (1998).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A perspective for nurses & other health professionals-*. Sage Publications, Inc.
- Parse, R. R.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contentment: A study using the Parse research method. *Nurs Sci Q*, 14(4), 330-338.
- Paskiewicz, L. S. (2001). Pregnant adolescents and their mothers: A shared experiences of teen mothering. *MCN*, 26(1), 33-38.
- Saewyc, E. M. (1999). *Meanings of pregnancy and motherhood among out-of-home pregnant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Tae, Y. S. (1994). *Hope phenomenon of korean cancer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un, J. A.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homlesswomen: Using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J Korean Acad Psychiatric Ment Health Nurs*, 10(4), 588-603.
- Ventra, S. J., & Curtin, S. C. (1999). Recent trends in teen births in the united states. *Stat Bull Metrop Insur Co*, 80(1), 2-12.